

수행·포교·문화 도량으로 '변신'

강화연등국제선원, 4월 중순 재가선방 '고경선원' 개원

강화연등국제선원이 달라진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참선수행도량 역할을 했던 데서 재가자 참선수행도량이자 외국인들의 한국 불교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도 벌인다. 수행·포교·불교문화체험 등을 아우르는 도량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화연등국제선원은 4월 중순 경 내·외국인 재가자 선방인 '고경선원'을 개원한다. 지난해 4월 착공해 최근 완공된 80평 규모의 고경선원은 최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참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도, 발우공양, 기초교리 강의, 간화선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외에 주5일제에 맞는 주말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할 방침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이들 프로그램 외

에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개인이나 단체에 관계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불교체험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연등국제선원은 현재 조계종의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돼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 단

가족단위 주말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노동자 복지활동 강화 소식지 제작 적극 홍보 방침

체로 사찰체험을 요청해오고 있다. 이들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연등국제선원은 150여명이 기거할 수 있는 요사채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포교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노

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활동. 연등국제선원이 위치한 강화 인근의 인천, 김포, 금강, 양곡 등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등국제선원은 우선 이들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의료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병원과 변호사를 섭외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 또 이들이 강짜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김포 인근에 사무실을 열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전해들은 강화 전등사와 선원사도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박일수 연등국제선원 총무실장은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재가자선방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식지도 만들어 연등국제선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032937-7033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분노의 끈 놓고 관용의 마음 갖자'

탁발순례단 '좌우대립 희생영가 위령제' 봉행



신천마을 위령제에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과 총무 중우 스님은 영가를 위해 청혼소와 장염염 불을 했다.

전남지역을 순례중인 생평평화탁발순례단(단장 도법)은 지난 3월 12일 낙안 신천마을에서 '좌우대립 희생영가 위령제'를 봉행했다.

생평평화 탁발순례단과 마을주민,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순천지역 시민단체는 50여년전 비극의 현장인 신천마을 입구에 제단을 마련하고 영가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이날 위령제를 집전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청혼소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인간역사의 비극 현장으로 불행의 원인이었던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찾고자 한다"며 "영가는 물론 살아있는 모두가 분노와 증오, 원한과 복수, 미련과 집착의 끈을 놓고 너그러운 가슴으로 관용의 마음을 갖자"고 했다.

위령제에 참석한 여순사건유족회 장준표 회장은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원한을 푸는 일로 가는 곳마다 억울한 영가들을 위호해 달라"며 생평평화 탁발순례단에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낙안 신천마을은 1949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인에 의해 마을주민 22명이 희생당하고 32가구가 불태워진 비극을 안고 있다.

이준엽 기자

당진 정토사 군발전 기원법회

충남 당진 정토사주지 선외가 3월 27일 오전 11시 정토사에서 '제5회 효도잔치 및 군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향토문화와 효사상을 선양하고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선망부모 극락왕생발원 조상천도대제, 군발전 기원법회, 가요·국악·사물놀이 등을 결집한 효도잔치 순으로 진행된다. (041)356-1383

한명우 기자



정찬호군 수술비돕기 나눔의 날 행사에 7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참했다.

'암 투병 친호를 돕읍시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은)는 지난 3월 13일 무등산 문빈정사 나눔광장에서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를 펼쳤다.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정찬호(8)군을 돕기 위해 마련된 나눔의 날 행사에는 문빈정사 신도회와 미르치과병원 자원봉사팀 등 7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사찰전통 국수와 죽점 등의 음식을 판매했다.

눈보라속에 열린 이번 나눔의 날 행사에는 총 300여만원의 수익금이 모였으며 3월말 친호 수술비도 지원한다.

생명나눔 광주전남 지역본부 (062)234-6602

농협 617-01-146875 예금주: 생명나눔 이준엽 기자

충북사찰, 장애인 불교활동 지원



충북불교총연합회 스님들과 37사단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충북도내 사찰들이 행편이 어려운 군장병 가정용 돌고, 군부대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불교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육군 37사단 초청으로 3월15일 37사단을 방문한 15명의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 스님들은 장병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37사단과 매년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하고 이를 통해 장병들의 불교신행활동을 적극 후원키로 했다.

또 사단 측으로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연합회 스님들은 한 사찰이 한 명씩 자매결연해 이들의 가정을 돕기로 뜻을 모으고,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만남에는 범주(충주 풍주선원 선원장)·각의(청주삼암연합회장, 용화사주지)·현진(청주 관음사 주지)·해월(옥천 대성사 주지)스님 등과 37사단 김일생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 참모 및 연대장 등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행주대첩기념제서 영산재



행주대첩기념제에서 고양시원연합회 스님들이 친도제를 봉행하고 있다

경기 고양의 대표적인 축제 '행주대첩기념제'에 불교계가 참가, 올해 처음으로 친도제와 영산재를 시연해 호응을 받았다.

고양시사원연합회(회장 도명)와 서울 봉원사는 15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3월 14일 고양시 행주대첩에서 열린 '제42회 행주대첩기념제'에서 행주대첩 당시 목숨을 잃은 영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친도제 및 친도행렬 시연에 이어 봉원사 스님들이 영산재를 시연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행주대첩관리소장 김충규씨(고양시 공무원복지회장)는 "친도행렬과 영산재 시연으로 행사가 한층 빛이 났다"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 불교의식을 행사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가평 현등사

자연이 수행·포교 원동력



현등사는 불사와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가평의 중심사찰로서 위상을 되찾고 있다. 사진은 주지 초격 스님이 2월 말 현등사를 방문한 인근 군부대 장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가평에서는 유일한 전통사찰이자 가장 오래된 사찰인 현등사. 사실 현등사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는 사찰치고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지가 자주 바뀌면서 지속적인 수행과 포교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찰을 가꾸는 데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4년 전 초격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등사는 외형부터 많이 변했다. 극락전 해체복원불사가 이뤄졌고, 지장전과 삼성각의 단청도 새로 했다. 또 응진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불거리가 많아지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히 현등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인근 군부대 장성들과 각급 기관장들이 줄지어 방문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옛 명성을 되찾은 현등사는 이제 관광사찰로서, 지장기도도량으로서, 대중의 쉼터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일주문과 불이문, 백담계단 불사가 진행되고 있

불사·불교대학 운영으로 위상 높아져

지역특성 고려한 단풍제·포도축제 계획

전이 건립됐고, 극락전 뒤쪽의 축대도 새로 쌓았으며, 2km에 이르는 진입로도 새로 놓여졌다.

내적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불교대학이 개설돼 체계적인 신도교육이 시작됐고, 산악회와 불교대학 총동맹회가 결성돼 신행활동이 활발해졌다. 또 아미타화상도, 관음탱화 등 10여점의 현등사 성보들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조계종 관람료위원회로부터 관람료사찰로 지정받았다.

또 주지 초격 스님이 가평군 상·하면의 22개 사찰이 연대하는 사암연합회 결성을 주도하고 현재 수석부회장을 맡으면서 지역사찰 활동의 중심지가 됐다. 이와 함께 인근 군부대 법당인 호국연화사의 자매결연을 통해 군

며, 올 부처님오신날 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을 가을부터는 템플스테이도 열 계획이다. 주변 경치가 빼어나고 포행코스도 좋아 산사체험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십분 살리겠다는 것. 기도객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제공할 생각이다. 아울러 포도로 유명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올 가을에는 운악산 단풍제 및 포도축제를 개최해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현등사 일주문 아래 유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지난 2월 유아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땀는데 활용해야지요." 주지 초격스님은 이렇게 덧붙

였다. (031)585-0707 한명우 기자

2004년도 불교역사를 한 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0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습니다. 매주 32면 발행으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신행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력자가 될 것입니다.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 1장을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4년 1월(404호) ~ 6월(480호) 하권 2004년 7월(481호) ~ 12월(506호)
- 판형 : 신문원형(40cm x 55cm) ●절차 : 전화신청 → 입금확인 → 택배발송
- 가격 : (상·하 2권) 총 80,000원(발송비 무료)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2004년도 이전 합본집 한정 특가 판매!!

● 2003년(상·하 2권) 70,000원 ● 2000년 ~ 2002년 각 5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 하세요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전남일원	이 준 업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 / 옥천	혜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